

1) 구 성

농악의 구성은 우선 농악대의 편성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농악의 구조나 특성은 그 편성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농악대의 편성은 쟁과리·징·장구·북을 일컫는 사물과 나발·새납(날라리·태평소)·소고 등과 같은 악기, 또 대포수·중·각시 등의 잡색, 그리고 농기나 영기와 같은 기로 이루어진다. 이 중 기·잡색은 뒤치배라 하고 나머지는 앞치배라 하는데, 앞치배는 주로 연주를 담당하고 뒤치배는 춤과 재담 등의 연극적 놀이를 연출한다.

이러한 농악의 편성은 농악의 기능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모를 심고, 논매기를 하고, 백중날 장원질을 할 때 치는 두레농악은 북색이나 편성이 간소하다. 반면, 걸립농악이나 연예농악의 경우는 편성과 북색 그리고 놀이가 다양하고 화려하게 구성된다. 이것은 두레농악은 일을 하거나 들노래를 부르며 치기 때문에 사물과 소고 위주로 간소화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판굿을 핵심 굿으로 놀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편성을 갖춘 것이다.

호남지역의 농악은 쇠(쟁과리·징)·장구·소고·잡색 등이 중심인 데 비해 영남지역의 농악은 징·북·소고가 중심이다. 그리고 경기·충청·강원도 농악에서는 무동과 소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의 농악에서는 잡색이 두드러지는데, 춤과 재담으로 이루어진 극놀이가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농악대의 편성을 살펴보면 농악은 음악·춤·연극·놀이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임을 알 수 있다. 사물과 새납 등의 연주와 쇠·장구·북·소고·춤·무동타기·진풀이 등의 놀이 그리고 잡색들이 하는 도둑재비·안놀음·비비새놀이 등의 연극 등이 어우러져 농악을 구성한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보다 신명나고 활기차게 놀 수 있다. 이는 농악을 악기의 연주로만 이해하려는 최근의 일부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농악은 치배들의 우수한 기량을 과시하는 개인놀이가 중심이 아니다. 우수한 기량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춤이나 재담을 통해 관객과 하나가 되는 놀이판을 만들고, 진풀이나 연극 등으로 그 표출기능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 중요하다.

